

P3-9

미취학 아동의 가족 비만에 따른 식이섭취상태 비교 문현경*, 손은정*, 허인영.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한 가정 내에서 영양이 부족한 사람과 과잉된 사람이 공존하는 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비만도가 모두 정상인 가정(normal)의 아동과 저체중과 과체중 혹은 비만이 공존하는 가정(dual)의 아동을 24시간 회상법에 의한 식이섭취상태를 비교하여 두 군간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전체 159가구 중 부모님은 Body Mass Index(BMI)로 저체중($20 \leq \text{BMI}$), 정상($20 < \text{BMI} < 25$), 과체중($25 \leq \text{BMI} < 27$), 비만($27 \leq \text{BMI}$)으로 구분하였고, 아동은 Weight length Index(WLI)로 저체중($\text{WLI} \leq 89$), 정상($89 < \text{WLI} < 110$), 과체중($110 \leq \text{WLI} < 120$), 비만($120 \leq \text{WLI}$)으로 나누었다. 그 결과 normal이 40가구이었고, dual이 30가구였고, dual 가구 내 아버지는 과체중과 비만이 50%이상인데 비해 어머니는 90%이상 저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al 내 아동이 저체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머니가 모두 저체중이었다. dual과 normal 내에서, 아동과 아버지의 체중은 dual이 높았으며($p < 0.05$), 어머니의 체중은 normal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영양소 섭취량과 권장량에 대한 섭취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에너지와 Vit B₁, Vit B₂는 dual 내 아동이 높은 경향이었으나, 단백질, Ca, Fe, Vit A, Vit C 등의 영양소는 normal 내 아동이 높은 경향이였다. 또한 영양소적정섭취비율(NAR)과 평균영양소적정섭취비율(MAR)로 살펴본 식이섭취상황은 두 그룹 모두 모든 영양소에서 0.75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와 단백질, P는 dual 내 아동이 높았지만, Ca, Fe, Vit A, Vit B₁, Vit B₂, Niacin, Vit C는 normal 내 아동이 높았다($p > 0.05$). DDS(Dietary diversity score)는 조사대상자 모두 3점 이상이었고, 5점인 아동이 normal 내 아동에서 더 많은 경향이었고, 그 평균으로 보았을 때에도 normal 내 아동이 조금 높았다($p > 0.05$). 또한 식품가지수는 normal 내 아동이 20.8가지로 18가지인 dual 내 아동보다 높았다($p < 0.05$). 음식가지수도 normal 내 아동이 높은 경향이였다. 이것으로 보아 normal 내 아동이 에너지를 높게 섭취하지는 않지만 무기질과 비타민을 보다 적절히 섭취하는 경향이었고,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영양불량과 영양과다가 공존하는 가정보다는 모두가 정상인 가정 내의 아동의 식생활이 질적으로 나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시 가족 구성원의 상태를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P3-10

병원 영양교육 및 상담 자료의 실태와 전산 프로그램 요구도 김종경*, 전영수, 한지숙.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식이요법과 영양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임상영양사 인력의 부족과 급식업무의 이중 부담으로 환자에게 충분한 식이요법과 영양관리 및 영양상담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많은 환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질환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자료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영양사 업무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영양관리 및 상담을 위해서는 컴퓨터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질환별 영양관리 및 상담자료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로서 부산시내에 소재하는 각 병원의 임상영양사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상담자료의 실태 및 전산 프로그램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만성질환 환자의 영양교육이나 상담시 사용되고 있는 자료는 자체제작자료, 대한영양사회리플렛, 영양관리 지침서, 잡지, 사진, 식품모형 등의 단순자료들을 이용하고 있을 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자료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양상담 자료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임상영양사 근무경력이나 영양상담 실시여부,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 등의 상담방식에 상관없이 97%이상 필요하다고 하였고, 자료의 종류 중에서는 95%이상 질환별 식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영양상담시 상담료를 받는 경우에는 환자가 식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상담시 환자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으로는 식품교환표와 단백질제한식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열량제한식, 저칼륨식, 저염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병원의 영양실에는 컴퓨터가 97%이상 보급되어 있었으나, 영양사 업무에 대한 전산화가 되어 있는 경우는 45% 정도였고, 이 경우 78%이상 OCS(online computer system)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를 이용한 영양상담 프로그램의 구비여부는 65%이상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는 66%이상 이용하고 있었고 특히, 임상영양사로서의 경력이 적을수록 많이 이용함을 알 수 있었다. 컴퓨터의 구비가 미비하거나 상담프로그램 구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예산부족이 절대적이었으며, 만약 컴퓨터를 이용한 질환별 상담프로그램이 있다면 이용하겠다는 질문에는 90%이상 이용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결과에 의해 영양상담자료로서 질환별 식단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인터넷의 대중화시대에 맞추어 영양사 업무의 전산화와 전산 프로그램의 보급이 각별히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된다.